

발간사

자승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오늘날 과학과 자본주의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능케 한 반면, 물질만능 풍조가 양산하는 생명경시와 상대적 빈곤의 증대는 우리네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국가는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민간 복지 영역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종교계 사회복지의 활약은 매우 주목할만하며 종교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요익중생을 위하여도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불교가 한국에 전래되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발고여락의 정신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동안 국가의 위기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실천해 온 불교의 보살행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서구 과학문명이 각광을 받고 불교가 이웃 종교에 비해 상대적인 약세로 평가받아온 것은 비단 사회복지 분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교사회복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약 1,100여 개소의 불교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이 활발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995년 대한불교조계종을 대표하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된 지도 어느덧 15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그간의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상을 파악하기 위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불교사회복지의 총량을 조사한 것은 불교계의 사회참여와 기여도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조사연구를 통하여 시설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가늠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쓰임은 물론 불교계 사회복지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가 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임과 동시에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는 근무처우를 비롯한 정당한 권익을 향유할 주체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진다는 측면에서 불교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조사는 1년 여에 걸쳐 이루어진 만큼 시설 자료조사에서부터 조사표 설계, 통계분석과 보고서 발간까지 매우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연구에 임해주신 재단 연구위원님들과 실무를 맡아 고생해 준 재단 사무국 및 연구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바쁜 업무 중에도 설문조사에 응해 준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불교계 자비나눔을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불교사회복지의 성장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불교계의 복지사업을 통한 사회참여가 더욱 확산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2010)년 12월